

❖ 나훔 2 장, '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!'

➤ 들어가기

본 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며 악행을 일삼던 니느웨가 어떻게 적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심판받게 되는지를 매우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장입니다. 본 장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,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1. 니느웨를 정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용맹스런 군사들 (1-5 절)

1) 하나님은 선지자 '나훔'의 입을 통해 니느웨를 멸망시킬 군사들이 올라왔으니 성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고 선언하셨습니다. (1 절)

- 1 절, '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,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'
 - 우선 '파괴하는 자'는 '니느웨(앗수르)'를 점령한 바벨론 왕 '나보폴리살(Nabopolassar)'과 메대 왕 '키악카레스(Cyaxares)'의 연합군들을 가리킨 말로 해석!
 - 곧 하나님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며, 한번 '허리를 견고히 묶고' 막아 볼 테면 막아보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것!
 - 이것은 자신들의 힘과 세상적인 조건들만 믿고 교만해 했던 니느웨 성과 앗수르 군대를 조롱하신 말씀!
 -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말고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해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함!

2) 특별히 이때 하나님은 '유다'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위로하셨고, '니느웨'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'유다'를 괴롭히며 포악을 행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. (2 절)

- 2 절, '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, 이는 악탈자들이 악탈하였고,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'
 - 참고: '니느웨'를 향한 공격에 대한 묘사가 잠시 중단되고,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!!
 - 이것은 니느웨와 유다를 번갈아 언급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한 '교차표현방식'!
 - 곧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/기쁨/승리가 됨!!
 - =>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위로/기쁨/승리가 될 것!!!
 - 하나님은 앗수르를 '악탈자들'로 표현하시며, 그들이 '포도나무 가지를 없앴다'고 책망!!
 - 성경은 종종 유다(이스라엘)를 '포도나무 or 포도나무 가지'로 비유 (사 5:7. 렘 12:10)
 - 곧 하나님은 당시 앗수르가 유다를 악탈하였을 뿐만 아니라,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!
 - 곧 유다 백성들을 살륙하며 포악을 행했음을 지적하며 책망하신 것!!
 - => 결국 앗수르가 심판받는 제일 큰 이유 =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 + 택한 백성을 핍박!!

3)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달려가는 용맹스런 적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. (3-5 절)

①. ‘용사들의 방패는 붉고,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’ (3a)

a.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옷과 방패의 붉은 색을 묘사한 것.

=> ex: 당시 연합군들이 든 방패는 나무 방패 위에 붉은 구리와 가죽을 입힌 것.

b. 이것은 앗수르 군사들의 피가 묻은 연합군들의 붉은 옷과 방패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!

=> 나아가 성경에서 붉은 색은 항상 심판의 필연성을 상징한 색!! (스 6:2, 계 6:4, etc.)

②. ‘병거의 쇠가 번쩍이고, 노송나무 창이 요동함’ (3b)

- 이것은 연합군이 가진 강하고 풍부한 군사 물자들을 대표적으로 묘사한 것!

③. 4 절, ‘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,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, 그 모양이 횡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!’

- 곧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니느웨 성을 향해 빠르고 거침없이 쳐들어 오는 연합군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!

④. 5 절, ‘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,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’

- ‘존귀한 자들’은 연합군을 대표한 자들로, ‘정예부대/특공부대’를 가리킨 말!

- 그런데 저들은 엎드러질 듯이 달려가서, 성벽 아래에 참호를 파고 용맹스럽게 성문을 부수고, 성벽을 타오르며 니느웨 성 함락에 선봉에 섰음!!

=> 하나님은 이와 같은 헌신적이고 용맹한 군사들을 ‘존귀한 자들’로 표현하신 것을 주목!

=>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이와 같은 ‘존귀한 군사들’이 되고자 힘쓰자!!

2. 함락당하는 니느웨 성의 모습 (6-10 절)

1) 니느웨 성의 함락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(6 절)

▪ 6 절, ‘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’

- 참고로 6 절에 기록된 ‘수문’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, 고고학적 기록으로 보면 당시 니느웨 성을 통과하여 티그리스 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고스르(Kosher) 강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수문이란 견해가 가장 유력함!

- 기록에 의하면 앗수르 왕 산헤립은 도시 외곽의 강에 물을 막아두는 둑을 설치하고 그곳을 저수지로 삼아 사용했는데, 이때 니느웨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 개의 두꺼운 수문을 설치해 도시로 들어오는 강물의 유량을 조절하게 했다고 함.

- 그런데 당시 연합군들은 니느웨를 포위하면서 수문을 다 닫아 저수지에 물을 가득채운 후, 혹은 폭우로 인해 급격하게 불어난 저수지의 물을 한번에 수문을 다 열어 흘러보냄으로써 니느웨 성을 침수시키며 공격했음!!
=> 그래서 어떤 학자는 '니느웨의 멸망은 결국 니느웨를 요새로 만들어 준 강물로 인해 멸망되었다'고 코멘트함!
=> 여기서 참고로 세상에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?

2) 니느웨 성이 함락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. (7 절)

- 7 절, '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'

 - 우선 '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'라고 했는데, '왕후'라는 말의 히.원. '후잡'은 그 의미가 사실 불확실한 말!
=> 그래서 문맥상 왕후로 번역하거나, 니느웨의 우상인 '이스달' 여신상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거나, 아니면 성안의 '모든 사람들'로도 번역할 수 있음.
=>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앗수르가 여러 민족들,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해 약탈하게 약탈하고, 수많은 백성들을 비참하게 포로로 끌고 왔던 것처럼, 결국 자신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당하게 되었다는 것! (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는 말 아닐까!)

3) 또한 성이 함락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(8 절)

- 8 절, '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,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'

 - '물이 모인 못 같다'는 표현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모여 살았음을 의미!
 - 그런데!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쳤다는 것!!
=> 특별히 이 말은 앗수르 왕이 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려 해도 어느 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, 급히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도 해석!!

4) 또한 성이 함락되자 성안의 아름답고 풍부한 재물들은 적들의 약탈거리가 되었습니다. (9 절)

- 9 절, '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'

 -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, 결국 심은대로 거둔 것이고, 행한대로 보응을 받은 것!

5) 결국 함락된 니느웨 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, 공허함과 황폐함만 남게 되었습니다. (10 절)

- 10 절, '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. 주인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'

-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사자처럼 강한 군사들이었고, 나라였지만,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고, 그 힘을 빼앗아 가시며 심판하시니, 공허와 황폐함만 남게 되었다는 것!!
=>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,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,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길 힘쓰자!!

3. 사자처럼 강했던 앗수르의 멸망 (11-13 절)

1) 비록 젊은 수사자처럼 강했던 ‘앗수르’였지만, 이제는 모든 힘을 잃고 무능력해졌다고 나훔 선지자는 선포하였습니다. (11-12 절)

- 11-12 절, ‘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?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?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,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,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’

- 참고로 당시 앗수르는 사자를 앗수르의 상징으로 사용했음!
- 앗수르의 왕들은 사자 사냥을 나가 사자를 죽이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함!
- 앗수르 왕 산헤립은 늘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며 ‘내가 사자처럼 포효했다’고 노래~
- 앗수르의 부조와 장식품들에는 사자 형상이 많음!!

-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이제 그 사자굴은 텅 비었다고 선언!
=> 이것은 곧 앗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것!

2) 그럼 이와 같은 앗수르의 멸망은 누가 행하신 것인가? =>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!!

- 13 절, ‘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,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,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’

- 곧 앗수르의 멸망은 표면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성장과 번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,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함!!
=>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행만 쌓아간다면,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함!! (역사가 이것을 증거!!)

-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구원과 영광스런 부활, 주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!!

=>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,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자!!